



신영식 교수

문1. 백제 건국의 주도세력이 고구려와 같은 계통임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 ① 공주 송산리 고분
- ② 부여 능산리 고분
- ③ 백제 금동 대향로
- ④ 서울 석촌동 고분

1. 정답 : ④

고구려 석촌동 고분의 돌무지 무덤은 고구려 집안현에서 발견된 돌무지 무덤과 같은 양식으로 백제 건국 세력이 고구려 유민이었음을 보여주는 유물이다.

문2. 밑줄 친 그가 시행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그는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 권세있는 신하를 공신이든 처남이든 가리지 않고 처단하고, 6조를 직접 장악하여 의정부 재상중심의 정책운동을 국왕중심체제로 바꾸었다.

- ① 공법을 실시하여 전세를 낮추고 공평하게 부과하였다.
- ② 언론기관인 사간원을 독립시켜 대신을 견제하게 하였다.
- ③ 호적사업을 강화하고 보법을 실시하여 군정수를 늘렸다.
- ④ 기본법전인 경국대전의 편찬을 완료하여 반포하였다.

2. 정답 : ②

제시된 글에서 밑줄친 그는 조선 태종이다. 태종은 사간원을 독립시켜 대신들을 견제함으로써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① 공법의 시행은 세종, ③ 호적제도의 강화와 보법의 실시는 세조, ④ 경국대전의 편찬 완료는 성종 대의 사실이다.

문3. 각 시대의 관료 선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 ㄱ. 통일신라의 독서삼품과는 골품신분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누어 관료를 채용하였다.
- ㄴ. 고려 광종은 쌍기의 건의를 따라 과거제를 시행하여 관료를 등용하였다.
- ㄷ. 조선에서는 생원·진사시에 입격하면 성균관에 진학하거나 문과에 응시할 수 있었다.
- ㄹ. 대한제국은 광무개혁을 통해 과거제를 폐지하고 근대적 관리 임용 제도를 도입하였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ㄷ, ㄹ

3. 정답 : ③

ㄴ. 고려 광종은 후주의 쌍기를 등용하여 역사상 최초로 과거제를 시행하였다. ㄷ. 조선에서 소과에 합격하면 백패를 받고 진사 또는 생원이 되었는데, 성균관에 진학하거나 문과에 응시할 수 있었다. ㄱ. 통일신라 원성왕 대의 독서삼품과는 유교 경전의 이해 정도에 따라 상, 중, 하로 나누어 관리를 등용하는 제도였다. ㄹ. 과거제를 폐지하고 근대적 관리 임용 제도를 도입한 것은 1894년 갑오개혁 대의 사실이다.

문4. 평양 지역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려는 거란과의 전쟁 후에 나성을 축조하였다.
- ② 조위충이 무신정권에 반발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 ③ 1866년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격침되었다.
- ④ 1920년대 초에 물산장려운동이 시작되었다.

4. 정답 : ①

거란 3차 침입 이후 강감찬의 주도로 나성을 축조한 곳은 개경이다. ② 평양에서 1174년에 무신정권에 반발하여 병부상서 겸 서경유수 조위충이 난을 일으켰다. ③ 1866년에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와 통상을 요구하다 군민과의 마찰로 전소되었다. ④ 1920년 조만식의 주도로 평양에서 물산장려운동이 시작되었다.

문5. (가), (나) 사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역사란 무엇이뇨, 인류 사회의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이 시간내에서 발전하여 공간까지 확대하는 심정활동의 기록이니, 세계사라 하면 세계 인류의 그리되어 온 상태의 기록이며, 조선사라 하면 조선 민족이 그리 되어 온 상태의 기록이니라.

(나) 한국사는 역사적 발전 단계를 거치지 못하여 근대로의 이행에 필수적인 봉건사회를 거치지 못하고 전 근대단계에 머물러 있어 사회 경제적으로 낙후한 상태다.

- ① (가) 와 같은 입장에서 쓰여진 대표적인 사서로 박은식의 『한국독립운동지혈사』가 있다.
 ② (가)의 저자는 묘청의 난을 ‘조선 역사상 일천년래 제일대사건’이라고 칭하였다.
 ③ (나) 사론의 주창자들은 식민주의 사관의 정체성 이론을 반박 하였다.
 ④ (나)의 사관에 입각해서 조선사편수회의 『조선사』가 집필 되었다.

5. 정답 : ③

제시된 글은 (가)는 민족주의 사학자 신채호, (나)는 일제의 식민사관으로서의 정체성론이다. ③ 정체성론을 비판한 것은 사회경제사학자로서 백남운이다. ① 민족주의 사학자로 신채호와 함께 박은식을 들 수 있는데, 박은식은 『한국통사』, 『한국독립운동지혈사』를 서술하였다. ② 신채호는 자신의 저서 『조선사연구초』에서 묘청의 난을 '조선 역사상 일천년래 제일대사건'이라고 표현하였다. ④ 1925년 조선사편수회는 조선사편찬위원회가 개칭된 것으로 총독부 산하 일제의 역사 왜곡을 위한 단체였다.

문6. 다음 백제와 관련된 사건을 시기 순으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 | | |
|--------------|------------|
| ㄱ. 불교가 전래됨 | ㄴ. 웅진으로 천도 |
| ㄷ. 나·제동맹의 성립 | ㄹ. 칠지도 제작 |

- ① ㄷ - ㄴ - ㄹ - ㄱ ② ㄷ - ㄹ - ㄴ - ㄱ
 ③ ㄹ - ㄱ - ㄷ - ㄴ ④ ㄹ - ㄷ - ㄱ - ㄴ

6. 정답 : ③

ㄱ. 동진의 마라난타에 의해 백제에 불교가 전래된 시기는 384년 침류왕 대의 사실이고, ㄴ. 백제의 웅진 천도는 475년 위례성이 장수왕에 의해 함락된 이후의 사실이다. ㄷ. 장수왕의 평양 천도 이후 나·제 동맹이 성립된 것은 433년의 사실이고, ㄹ. 칠지도의 제작은 근초고왕 대의 사실로 4세기의 사실이다. 따라서 순서대로 배열하면 ㄹ - ㄱ - ㄷ - ㄴ 이 된다.

문7. 불교계의 동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원효는 화엄사상을 바탕으로 교단을 형성하여 많은 제자를 양성하였다.
 ② 의천은 이론의 연마와 실천을 아울러 강조하는 교관 겸수를 제창하였다.
 ③ 지눌은 선과 교학의 근본이 하나라는 정혜쌍수를 사상적인 바탕으로 삼았다.
 ④ 요세는 법화신앙에 중점을 둔 백련결사를 제창하여 지방민의 호응을 얻었다.

7. 정답 : ①

화엄사상을 바탕으로 부석사 중심의 화엄종을 개창한 것은 의상에 대한 내용이다. ② 고려시대 의천은 교과 겸수, 내외겸전을 바탕으로 천태종을 창시하여 교종 중심의 선종 통합을 시도하였다. ③ 고려 후기 지눌은 선종 중심의 교종 통합을 시도하면서 정혜쌍수, 돈오점수를 제창하였다. ④ 고려 후기 요세는 법화신앙을 중심으로 만덕사 중심의 백련결사를 제창하여 지방민의 호응을 얻었다.



신영식 교수

문8. 밑줄 친 그가 실시한 개혁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의 즉위 이후에도 원의 간섭은 여전하였고, 친원과 역시 견재하였으나, 친원파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현실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였다. 때마침 원에서 기황후의 아들이 황태자에 봉해지자, 이러한 추세는 더욱 심해졌다. 이를 계기로 기철의 권력이 그를 압도할 정도로 커졌고 기철의 일족과 친원파의 정치적 지위가 크게 높아졌다.

- ①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기 위하여 요동 지방을 공략하였다.
- ②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던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였다.
- ③ 성균관을 순수한 유교 교육 기관으로 개편하고 유교 교육을 강화 하였다.
- ④ 정방을 폐지하고, 사림원을 설치하여 개혁정치를 수행하였다.

8. 정답 : ④

제시된 글에서 그는 공민왕이다. ④ 정방을 폐지하고, 사림원을 설치하여 개혁정치를 수행한 것은 충선왕이다. ① 공민왕은 요동 지방을 공략하고 요양을 점령하였으며, ② 정동행성의 이문소를 폐지하기도 하였다. ③ 성균관을 순수 유교 교육 기관으로 개편하고 유교 교육을 강화하여 신진사대부를 등용하였다.

문9. 고려의 전시과와 조선의 과전법에서 공통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묶은 것은?

ㄱ. 관리들에게 18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였다.
 ㄴ. 과전은 본인 사후 반납이 원칙이었다.
 ㄷ.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하였다.
 ㄹ. 5품 이상의 관리들에게 세습이 허용된 별도의 토지가 지급되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 ③ ㄴ, ㄹ ④ ㄷ, ㄹ

9. 정답 : ①

ㄱ. 전시과와 과전법은 모두 관리들의 등급에 따라 18등급으로 나누어 수조지를 차등 지급하였다. ㄴ. 과전은 본인이 죽은 후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ㄷ. 과전법은 현직 관리 뿐 아니라 전직 관리에게도 수전전, 홀양전의 형태로 토지가 분급되었다. ㄹ. 5품 이상의 관리들에게 세습이 허용된 공음전이 지급된 것은 전시과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문10. 다음 자료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청과의 조공관계를 청산하고 대원군을 다시 데려온다.
- 양반신분제도, 문벌을 폐지하고 인재를 등용하여 인민 평등을 실현한다.
- 내시부, 규장각 등 왕의 근시기구를 폐지하고 입헌군주제에 입각한 내각제를 수립한다.

- ① 전제군주제를 입헌군주제로 바꾸어 근대 국민국가를 수립하려고 하였다.
- ② 청일전쟁으로 청군이 일부 철수한 상황에서 일본의 군사력을 끌어들이어 일으켰다.
- ③ 봉건적 신분제도를 타파하고 인민 평등권을 확립하여 근대적 평등사회를 이루려고 하였다.
- ④ 일본의 침략 의도를 인식하지 못하고 무력 지원을 받아 외세의 조선 침략을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10. 정답 : ②

제시된 개혁안은 1884년 갑신정변 때 급진개화파들이 제시한 14개조의 개혁 정강의 내용이다. ② 청일전쟁은 1894년의 사실이고, 갑신정변은 1884년의 사실이므로 시기가 맞지 않다. 갑신정변 때 급진개화파가 일본군을 끌어들이려고 시도하게 된 배경은 청프전쟁으로 청군이 일부 철수한 상황이다. ① 갑신정변을 주도한 급진개화파는 입헌군주제를 바탕으로 근대적 국민국가를 수립하고자 하였다. ③ 급진개화파는 봉건적 신분제를 타파하고 인민 평등의 권리를 내세워 평등사회를 구현하고자 시도하였다. ④ 갑신정변은 일본의 지원을 바탕으로 하였으므로 결국 외세의 조선 침략을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한성조약 등의 체결로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면서 국가 재정의 악화되 초래했다.

문11. 통일 신라의 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주 인구의 증가로 상품 생산이 늘어 동시, 서시, 남시 등의 시장이 설치 되었다.
- ② 역(役)은 군역과 요역으로 이루어졌으며, 대체로 16~60세의 남자에게 부과되었다.
- ③ 무역의 확대로 중국 산둥 반도와 양쯔 강 하류에 신라방, 신라소, 신라관, 신라원 등이 설치되었다.
- ④ 귀족은 녹읍과 식읍을 통해 그 지역 농민을 지배하면서, 조세와 공물을 거두었으나, 노동력의 동원은 불가능 하였다.

11. 정답 : ④

귀족에게 지급된 녹읍과 식읍은 귀족들이 마을 단위로 수조권 행사와 함께 노동력 징발을 가능하게 함으로서 귀족의 경제 기반을 강화하였다. ① 지증왕 대 설치된 동시 외에도 통일신라 이후에는 경주에 서시와 남시가 설치되었다. ② 역은 노동력을 징발하는 것으로 군역과 요역으로 구분되며, 16세에서 60세에 해당하는 남자에게 부과되었다. ③ 당과의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산둥반도(덩저우)와 양쯔강 유역(항저우) 일대에 신라방, 신라소, 신라과, 신라원이 설치되었다.

문12. 조선후기 상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부상은 농촌의 장시를 하나의 유통망으로 연계시켰다.
- ② 동래의 내상은 선박의 건조 등 생산 분야에 까지 연계시켰다.
- ③ 의주의 만상은 대중국무역을 주도하면서 재화를 많이 축적하였다.
- ④ 개성의 송상은 인삼을 재배 · 판매하고 대외무역에도 깊이 관여 하였다.

12. 정답 : ②

선박의 건조 등 생산 분야까지 연계시킨 조선 후기 사상(私商)은 경상(京商)이다. ① 조선 후기 농촌의 장시

를 하나의 유통망으로 연계시킨 상인은 행상으로서 보부상이다. ③ 만상은 의주를 중심으로 대청무역을 주도하였으며, 막대한 이익을 축적하였다. ④ 송상은 개성 상인으로 증포소를 운영하면서, 전국 인삼의 재배, 판매에 대한 독점권을 갖고 있었다. 또한 송방을 중심으로 만상과 내상을 연계하면서 대외 중계무역에도 관여하였다.

문13. 1894년 동학농민운동 당시 농민군의 요구사항으로 관계가 먼 것은?

- ① 과거제를 폐지하고 지벌을 타파할 것
- ② 탐관오리와 횡포한 부호를 엄징할 것
- ③ 신분제를 폐지하고 과부의 재가를 허용할 것
- ④ 무명잡세를 거두지 말고 기왕의 공사채를 무효화 할 것

13. 정답 : ①

동학은 과거제 폐지 등 제도의 개선이나 근대적 개혁의식을 갖고 있지 못했다. ②, ③, ④는 모두 동학농민군이 1894년 5월에 제시한 폐정개혁안의 내용이다.

문14. 다음의 발언을 한 (가),(나) 정치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 이제 우리는 무기 휴회된 마. 소 공동 위원회가 재가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 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케 되지 않으니,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 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하여야 될 것이니 여러분도 결심하여야 될 것이다.
- (나) 현시에 있어서 나의 유일한 염원은 3천만 동포와 손을 잡고 통일된 조국의 달성을 위하여 공동 분투하는 것뿐이다. 이 욕신을 조국이 수요(需要)로 한다면 당장에라도 제단에 바치겠다.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에 구차한 안일을 취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데 협력 하지 아니하겠나.

- ① (가)는 신한청년단의 대표로 활동하였다
 ② (나)는 독립촉성중앙협의회 대표로 활약하였다.
 ③ (가),(나)는 신탁 통치 실시를 반대하였다.
 ④ (가),(나) 좌우 합작 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14. 정답 : ③

(가)는 1946년 6월 발표된 이승만의 정읍 연설, (나)는 1948년 2월에 제시된 김구의 '삼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다.

이승만과 김구는 모두 신탁통치 실시에 반대하였다. ① 신한청년단의 대표는 여운형이다. ② 독립촉성중앙협의회 대표는 이승만이고, ④ 좌우합작운동을 적극 주도한 것은 여운형과 김규식이며, 이승만은 소극적 조건부 찬성, 김구는 초기 반대, 이후 찬성하였다. 좌우합작 7원칙에는 이승만과 김구가 모두 반대하였다.

문15. 역사서의 편찬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삼국사기』는 고려 초기에 쓰여진 구삼국사를 기본으로 유교적 합리주의 사상관에 기초하여 기전체로 서술되었다.
 ② 한 왕대의 역사를 후대에 남기기 위한 실록의 편찬은 조선시대부터 시작되어 『태조실록』에서 『철종실록』까지 계속되었다.
 ③ 『고려사』는 『고려국사』를 계승하여 고려시대의 역사를 재정리한 기전체의 역사서이다.
 ④ 안정복은 고조선에서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서술한 『동사강목』을 저술하여 우리 역사의 독자적 정통론을 체계화 하였다.

15. 정답 : ②

엄밀한 의미에서 문제 오류이다. 제대로 처리한다면 ②, ③번이 복수정답으로 처리되어야 할 듯하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에서 명백한 오류임에도 불구하고 복수정답을 인정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답은 ②번으로 처리될 듯하다. ② 실록은 이미 고려시대 초기부터 편찬되었고, 거란 침입으로 소실된 것을 현종 대에 다시 7대실록으로 간행하기도 하였다. ③ 『고려사』는 세종 대 편찬하는 과정에서 『고려국사』에서 '중'을 '왕'으로 '태자'를 '세자' 등으로 제후국에 맞게

편리한 것을 다시 원상태로 복구시켜 실록 그대로 기술하기를 명하는 내용이 『조선왕조실록』에 나온다. 결과적으로 엄밀한 의미에서 『고려사』는 태조 대의 『고려국사』를 계승한 것이 아니라, 자주적 입장에서 고려시대 역사를 재정리하기 위해 기전체로 간행한 역사서라고 보아야 한다. ① 『삼국사기』는 구(舊) 삼국사를 바탕으로 하였으나,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입각하여 기전체로 서술되었다. ④ 안정복은 고조선에서 고려 말까지 역사를 『동사강목』에서 서술하였으며, 우리 역사의 독자적 체계화를 시도하였다.

문16. 다음 제시문의 ㉠, ㉡, ㉢에 들어갈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 (가) (㉠) 6년(1380) 8월 추수가 거의 끝나갈 무렵 왜구는 500여 척의 함선을 이끌고 (㉡)로 쳐들어와 충청·전라·경상도의 3도 연해의 주군을 돌며 약탈과 살육을 일삼았다. 고려 조정에서는 나세, 최무선, 심덕부 등이 나서서 최무선이 만든 화포로 왜선을 모두 불태워 버렸다.
 (나) (㉢)이(가) 이끄는 토벌군이 남원에 도착하니 왜구는 인월역에 있다고 하였다. 운봉을 넘어온 (㉢)은(는) 적장 가운데 나이가 어리고 용맹한 아지바투를 사살하는 등 전투에 나서 전투를 독려하여 아군보다 10배나 많은 적군을 섬멸했다

	㉠	㉡	㉢
①	창왕	진포	최영
②	우왕	당포	최영
③	창왕	당포	이성계
④	우왕	진포	이성계

16. 정답 : ④

(가)는 최무선이 화포를 이용해 왜구를 격퇴한 진포해전, (나)는 이성계가 아지발도(아지바투)를 사살한 황산대첩과 관련된 내용이다. ㉠은 우왕, ㉡은 진포, ㉢은 이성계이다.



신영식 교수

문17. 다음 서적들의 편찬 시기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 | | |
|-----------|----------|
| ㄱ. 동국이상국집 | ㄴ. 불씨잡변 |
| ㄷ. 임원경제지 | ㄹ. 해동제국기 |

- ① ㄱ - ㄴ - ㄷ - ㄹ ② ㄱ - ㄴ - ㄹ - ㄷ
③ ㄴ - ㄱ - ㄷ - ㄹ ④ ㄴ - ㄱ - ㄹ - ㄷ

17. 정답 : ②

ㄱ. 『동국이상국집』은 고려 무신집권기 이규보가 간행한 문집이다. ㄴ. 『불씨잡변』은 정도전이 1395년 송유억불의 맥락에서 불교를 비판하면서 쓴 저술이고, ㄷ. 『임원경제지』는 서호수의 아들 서유구가 『산림경제』등 조선 후기 농서와 중국 농서 900여 권을 참조하여 19세기 현종 대 간행한 농학 백과사전이다. ㄹ. 『해동제국기』는 신숙주가 세종 대에 일본에 다녀와서 견문기를 기록한 것을 성종 대에 왕명으로 간행한 저술이다.

문18. 다음 자료에서 제기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예전에는 군포가 2필이었던 것이 지금은 1필로 되었으니 백성들이 더욱 넉넉해져야 마땅한데 더욱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군적에 누락된 장정이 많기 때문입니다”

- 정조실록 -

- ① 재정 확보를 위해 공명첩을 발매해야 한다.
② 도망한 사노비를 찾아서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③ 서얼 출신이 관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한을 없애야 한다.
④ 양인과 노비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은 양인으로 인정해야 한다.

18. 정답 : ④

제시된 내용은 군역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누락 장정의 증가와 군적 문란으로 인해 실제로 양인 농민층의 고통이 완화되지 못했던 상황을 서술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양인 수를 확보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고려에서 조선까지는 일천즉천의 원칙에 따라 부모 중 한쪽이 천민이면 자식도

천민이 되는 법이 시행되었는데, 영조 대에는 노비종모법에 따라 어머니가 양인이면 자식이 양인이 되는 법이 시행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양친혼의 경우에도 자식이 양인이 되는 방향에서 시행된 것으로 양인 군정 수를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① 공명첩의 발급은 임진왜란 직후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군역 면제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오히려 군정의 군포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② 사노비는 군역 대상자가 아니므로 군포 감액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③ 1851년 서얼허통은 서얼의 문반직 진출을 가능하게 했는데, 이 역시 군역 증강 및 민생 안정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문19. 다음 조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사건이 아닌 것은?

- 일본국 정부는 동경의 외무성을 경유하여 금후에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감리 지휘할 것이요, 일본국의 외교 대표자 및 영사는 외국에서의 한국의 신민 및 이익을 보호할 것임.
-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타국 간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한국 정부는 금후 일본국 정부의 중계를 거치지 않고서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떤 조약이나 약속을 맺지 않을 것을 서로 약속함.

- ① 포츠머스 조약 ② 시모노세키 조약
③ 제2차 영일 동맹 ④ 가쓰라·테프트 밀약

19. 정답 : ②

제시된 내용은 1905년 11월 제2차 한일협약(을사조약)의 내용이다. 1905년 7월 미국과 일본 간 가쓰라·테프트 밀약, 1905년 8월 제2차 영·일동맹, 1905년 9월 포츠머스 강화조약은 모두 일본의 한국 지배를 인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일본과 타국 간에 맺어진 것이다. 이를 계기로 1905년 11월 을사조약이 체결된 것이고, 한국에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외교권이 박탈되었다. ② 시모노세키 조약은 1895년 1월 체결되어, 4월 발효된 것으로 청·일 전쟁 후 청나라의 배상 문제와 조선에 대한 일본 지배를 위한 초석을 놓는다는데 의의가 있었으나, 제시된 을사조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문20.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17조 임시토지조사국은 토지대장 및 지도를 작성하고 토지의 조사 및 측량에 대해 사정(査定)으로 확인한 사항 또는 재결을 거친 사항을 이에 등록한다.

- ① 명의상의 주인을 내세우기 어려운 동중·문중 토지의 상당부분이 국유지에 편입되었다.
- ② 지주 계층의 사전 강매에 따른 혼란과 유상 분배에 따른 빈농의 어려움이 나타났다.
- ③ 신고주의 원칙에 상관없이 조선인 지주와 수조권자의 경우 소유권 취득에 실패 했다.
- ④ 대한제국기에 시행된 토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민의 토지에 대한 여러 권리를 완전히 인정하였다.

20. 정답 : ①

제시된 내용은 1912년 시행된 토지조사사업의 일부이다. 기한부 신고제로 시행되었으며,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토지와 토지 소유권을 분명히 할 수 없는 토지, 즉 문중의 토지 등은 모두 총독부의 소유가 되었으며, 총독부는 전체 농지의 40%를 잠탈하였다. ②는 1949년 6월 제정되어 1950년 3월 개정 시행된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법에 대한 내용이다. 3정보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지주는 자신 명의의 농지를 매입되기 전에 강매하였으며, 3정보를 지급받은 빈농은 매년 30%씩 5년간 농지 가격을 납부해야 했으므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③ 토지조사사업은 조선인 지주층을 회유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되었으므로 수조권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지주의 소유권은 그대로 인정되었다. 그 결과 지주의 수가 이전보다 늘어나게 되었다. ④ 대한제국기의 지계발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토지조사사업 단계에서는 지주의 소유권만이 인정되고 농민들에게 부여된 도지권이나 입회권이 모두 부정되면서 일반 농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야기되었다.